

[도전! 해외 일자리] 미국 인턴십 & 싱크탱크

돈으로 살 수 없는 넓은 시야, 태평양 건너서 찾는다

얼어붙은 국내 취직시장에 절망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처럼 들릴 탈출구가 있다. 외국 문물과 외국어를 익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외국어 실력과 함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향후 취직의 발판이 될 것으로 인턴 희망자들은 기대한다. 자신을 고급 두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 같은 싱크탱크의 문을 두드려 보라. 더 큰 세계가 보인다. 미국에서 인턴과 싱크탱크 직원으로 근무 중인 한국 청년들을 만나봤다.



뉴욕·워싱턴=남정호·김정욱 특파원

현지 회사에서 땀 흘리는 인턴들

미국 유수의 한인 의류업체 사우스폴에서 7개월째 일해온 류현진(23·여)씨는 이 회사 테크니컬 디자인팀 인턴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평균 30여 개의 청바지 샘플을 검사한다. 한국의 지방대 의류학과를 다니다 온 류씨는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 회사로 오게 됐다. 그는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실무 영역을 경험하게 돼 앞으로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해 했다. 그러면서 “세계 패션의 중심가라는 뉴욕 5번가를 걷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웃는다.

같은 회사 남성 캐주얼 부문에서 일하는 머천다이스 조희영(22·여)씨는 서울의 K대 경영학과를 다녔다. 기획파트에서 낸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들에게 전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게 주 업무다. 이들은 교육생으로 규정된 인턴이기에 4일만 일하고 하루는 회사 측에서 마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현재 사우스폴에 근무 중인 한국 인턴은 10여 명. 미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까닭에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올려주는 건 무척 까다롭다.

그럼에도 놓치기 아까운 인재일 경우 회사 측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채용하기도 한다. 3년째 일해온 영캐주얼 MD 팀 강병훈(29)씨가 그런 케이스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극성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1 조희영☺ 류현진☺씨는 미국의 한인 의류업체 사우스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강병훈☺씨는 이 회사의 인턴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2 미국 현지 업체인 시드코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김영호씨☺는 올해 주니어 회계사가 됐다. 3 한인 유통회사인 한아름 마트 계열사에서 일하는 김현수씨도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식 사원으로 승격됐다.



다른 한인 유통업체인 한아름마트 계열사에서 일하는 김현수(28)씨도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행운아다. 그의 주 업무는 슈퍼마켓들의 물품 요청을 취합, 이들을 대신해 육류·어패류 등을 확보하는 구매 대행이다. 김씨는 1년간의 인턴 시절 첫 4개월은 슈퍼마켓 매장 시식 코너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현재의 업무를 맡아 정식 사원으로 승격했다. 그는 “우연히

마트의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며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어 어학연수보다 경제적 부담도 작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영어와 오피스 프로그램 정도는 익히고 와야 인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물론 한인업체가 아닌 미국 현지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도 적잖다. 김영호(27)씨가 그런 사례로 현재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업체인 시드코(SEEDCO)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 올해 주니어 회계사로 정식 채용됐다. 대출금의 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그는 유연한 근무제도에 따라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이 하루 7시간만 일하면 된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인턴 근무 중이던 지난해 말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토대를 만들었다. 그는 “이미 인턴 생활을 마친 사람들을 만나 경험담을 듣는 등 6개월간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며 “미국에서 인턴 생활에 성공하려면 사전 정보 수집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한인 업체가 많아

인턴십 알선 업체들은 “현지 유명 대기업의 인턴 자리를 뚫으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이는 인턴십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적은 보수를 주고 갓 졸업한 인력을 부리는 걸로 인턴을 인식하는 게 보통이다. 반면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인턴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인턴을 거칠 경우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예외 없이 미국 명문대 출신 인턴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터라 영어가 서툰 한국 출신 인턴들이 이런 곳에 안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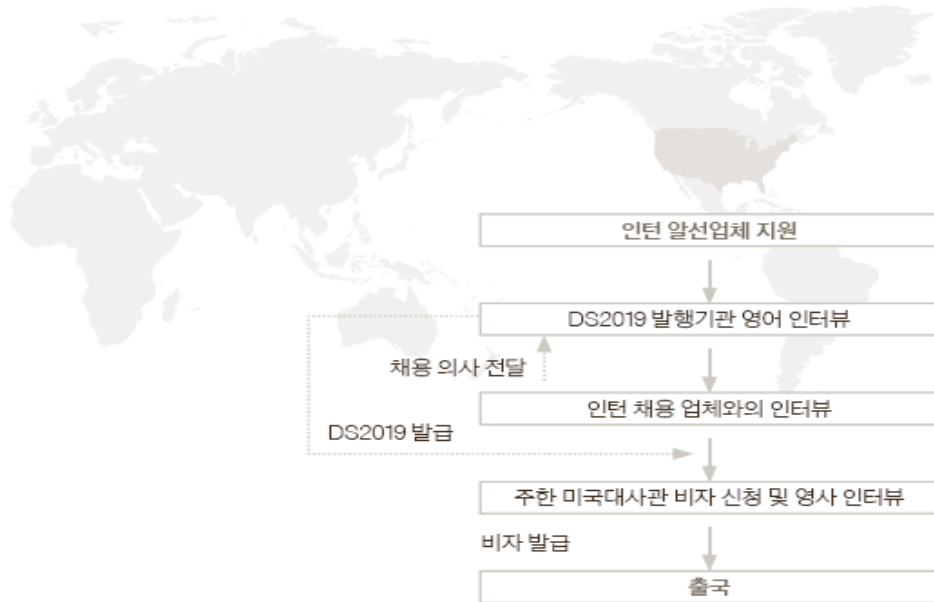
반면 한인 기업들로서는 사내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까닭에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한국인 인턴들을 환영한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우량 한인 업체로 꼽히는 사우스폴, H마트 등이 그런 예다. 뉴저지에 위치한 헤드헌팅업체 세스나의 윤천규 공동대표는 “조지아, 앨라배마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공학 전공 한인 인턴들의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H마트 김현수씨는 “미국에서 일하는 인턴의 경우 한인 업체와 순수 외국 현지 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7대 3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패션디자인·회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등 영어가 부족해도 큰 지장이 없거나 아시아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등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서는 한국인 인턴에 대한 수요가 있다. 뉴욕인턴십 류종수 이사장은 “규모는 작지만 안나수이 등 유명 패션회사와 사치엔사치, 벨스리서치 등 세계 굴지의 마케팅 회사에서도 한국인 인턴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인·외국 업체, 어느 쪽이 맞을까

같은 인턴이지만 한인 업체와 외국 현지 업체에서 일하는 건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한인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한국어를 많이 쓰게 되고 외국 업체에선 영어로만 일해야 한다. 어학 실력을 닦는다는 측면에선 외국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턴 생활 전체를 통틀어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자칫 영어가 문제돼 최악의 경우 도중에 해고되는 사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업체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크게 흠 잡힐 위험이 덜하다.

또 한국 업체는 외국 회사에 비해 인턴 임금도 후한 편이다. 외국 업체에선 한 달에 800~900 달러를 주거나 아예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인 업체는 근무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월 2000 달러까지 주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인턴십

미국에서 인턴직원으로 일하려면 대개 두세 번의 인터뷰와 제출 서류 통과 및 사전 교육 등 수월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턴십 알선 업체를 이용할 경우 첫 단계는 ‘DS2019’ 발행기관과의 영어 인터뷰다. 미국 내 담당 직원과 국제전화로 통해 인터뷰를 실시한다. DS2019란 인턴, 즉 연수생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임을 확인해 주는 신원보증 서류로 J-1 비자 발급에 반드시 필요하다. 유학생 비자 발급 시 학교에서 받아 대사관에 제출하는 입학허가 확인서 I-20 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인턴 지망자의 자질과 어학 능력을 평가, 적당한 업체를 알선해 준다.

여기를 통과하면 인턴을 뽑는 업체와의 인터뷰가 기다린다. 국내에서 인턴을 뽑으려는 미국 업체들은 통상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하거나 인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적당한 인력을 선발한다. 이때에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DS2019 서류가 온다. 인턴십을 할 업체가

먼저 결정될 경우엔 나중에 DS2019 발행기관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어쨌거나 인턴 지망자는 DS2019 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보증서 등을 여권과 함께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과하면 J-1 비자가 발급돼 미국 입국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끝난다. 다만 미국 도착 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적잖은 알선업체에서는 직장 문화 등과 관련한 사전 교육을 한다. 예컨대 동료 여성 직원들의 등이나 어깨 등을 함부로 툭툭 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식의 주의사항을 가르치게 된다. 통상 3~4 개월 걸린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미 싱크탱크 이렇게 뚫었다

행사장서 눈도장 찍었다 ‘알짜’ 인맥이 쌓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300여 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몰려 있다. 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보다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석일우(34·헤리티지재단 연구원·사진 左)씨와 송지영(29·세계은행 컨설턴트右)씨는 “밖으로 눈을 돌리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엘리트들과 한곳에서 일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워싱턴 DC 전체가 교실”

석씨는 2007년 11월부터 헤리티지 재단으로 출근한다. 2007년 7월 미시간 주립대(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 대학 정치학 석사과정에서 수학 중이던 그는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 연구소가 연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곧바로 응시했다. 석씨는 이력서와 작문, 학교 성적표, 추천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두 차례 면접 심사를 받았다. 아시아연구소 소장과 동북아 지역 전문가가 나서 각각 한 시간씩이나 질문을 쏟아 냈다.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 작은 정부와 세금 감면 등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는 게 석씨의 기억이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 구사 능력, 한반도 현안에 대한 지식 등이 다섯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석씨는 1994년 인천 송도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처음엔 미시간 주립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지만 “주관적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음악수업이 쉽지 않아” 두 해 만에 정치학과로 옮겼다. 이어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땀다. 석씨의 하루 일과는 그가 맡은 지역인 남북한, 일본, 동남아,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중요한 뉴스들을 모니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의 매일 워싱턴 DC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사람을 사귀고 시각을 살피우는 것도 큰일 중 하나다. 이어 중요 현안에 대해 논점을 살린 리포트를 선임연구원에게 제출한다. 석씨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력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DC 전체가 교실”이라고 말했다.

“큰물에서 노는 기분이 달라요”

2008년 9월 세계은행에 입성한 송지영씨의 첫 직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였다.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에 다니던 그는 한국 관련 연구소에서 무급 인턴 생활을 했다. 성실한 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 상사의 추천으로 2005년 9월 석사학위 취득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의 업무는 마침 선임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브루킹스에 와 있던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일본 아사히신문 주필의 한반도 관련 연구를 돕는 일이었다. 송씨는 “하루 종일 자료 찾기와 보고서 작성이 반복되는 강행군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매일 일어나는 현안들에 대해 자료와 함께 A4 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후나바시 대기자가 일일이 읽어본 뒤 시각을 교정해 주었다”며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실력이 쌓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씨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받는 세계은행에 도전했다. 면접을 비롯한 6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동아태 지역의 빈곤 해소와 경제 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됐다. 그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엘리트들과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각별하고, 배우는 것도 많다”며 “특히 여성에게 좋은 직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취업 성공 비결은...

1 무급 인턴 자리를 활용하라.

미국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 무보수 인턴 자리가 많다. 연구소나 대학뿐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인턴을 뽑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라.

2 평소에 관심 분야 전문 지식을 쌓아라.

신분이 한국인인 이상 한반도 또는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에 면접관들이 주로 하는 질문도 한반도 현안과 관련된 것이 많다.

3 공짜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라.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인연(네트워크)을 중시하는 사회다. 각종 행사장을 찾아가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라. 주최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짜 샌드위치로 한 끼 식사를 훌륭히 때울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나 e-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된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 직간접으로 큰 도움을 준다.

4 영어 등 어학 실력은 필수.

사실 영어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접하고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정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미국 인턴십 준비 전문가 충고 환상 버리고 낮은 자세로 일해야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기대치를 높게 가져선 안 된다는 게 뉴욕 취업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불경기에 빠진 미국의 대기업들도 기존 인력을 처내는 판에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한국 인턴사원을 채용할 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환상을 버리고 눈높이를 낮춰 일손이 달리는 한국계 기업이나 미국 중소기업체에서라도 일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① “취업으로 연결될 자리 구해야”

세스나 김성민 사장은 인턴십을 할 직장을 고를 때 정식 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한국에서 학교를 마친 대졸자가 막바로 미국에 와서 정식 직원으로 취직하는 건 거의 전무하다”며 “각자의 전공과 소양 등을 감안, 기왕이면 인턴 생활 후 정식으로 일자리를 줄 회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IBM·GM 같은 일류 회사에서 품위 있게 일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영어와 새로운 문물을 익힐 수 있어 미국 인턴십은 해볼 만하다”고 권했다.



② “직장인의 마음가짐 중요”

HRCap 김성수 사장은 “대개의 경우 미국 내 인턴은 한국의 비정규직 업무에 해당될 것”이라며 “따라서 자칫 업무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의 기본적인 모습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알선기관이 미국 입국 후에도 인턴직원들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관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③ “영터리 알선업체 조심”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전에 알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ADI 안진오 사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J-1 비자는 인턴 생활을 할 회사의 이름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알선업체에서 이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한 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직장에서 일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음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안 사장은 충고했다.